

살펴 보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통하는 KIIHA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산업보건협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 활성화로 소통 폭 넓혀

- 센터별 공식 SNS 계정 확대
- 산업보건 관련 정보 공유



박진완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모든 사회 및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역시 업무에 많은 제한이 생기고 있다. 건강검진의 경우 코로나로 집합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검진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검진을 안할 수는 없다.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특수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직업성 질환에 대한 주기적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원내검진은 지역거점마다 설치된 전국의 검진센터로 광역범위 수검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내원하기 때문에 코로나 동선 등 많은 부분에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업무와 보건관리대행업무 또한 협회 직원들이 사업장에 직접 나가서 측정 또는 상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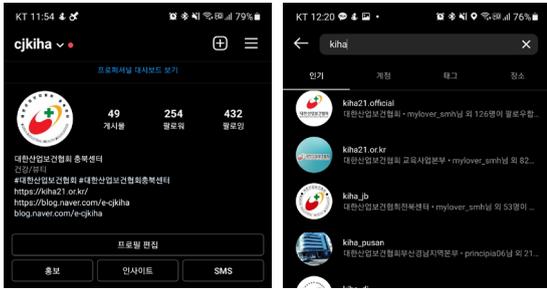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접촉자와 동선이 겹치는 직원이 다양한 사업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슈퍼전파자가 될 위험성도 있다. 사업장, 수검자, 협회 직원, 지역주민들까지도 코로나의 위험에 놓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필수 업무의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그 외 활동은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각 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산업보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산업보건센터는 산업보건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지역 센터 자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외부에 알리고 있다. 기존에는 원내까지 와서 직접 확인해야 했던 부분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하여 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방접종 비용과 검진 문의도 바로 확인 가능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각 센터에서는 안내 전화를 통해 예방접종이나 검진문의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센터 자체 전화번호를 몰라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대표전화로 연결하여 각 부서를 돌려가며 기



실제 많은 지역센터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에 불만도 많았다. 지금은 검색창에 대한산업보건협회만 검색해도 부서별 연락처 및 각종 검진상품이나 예방접종에 대한 가격 및 세부적인 내용이 잘 안내되어 있어 바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한 MZ세대라 일컫는 젊은 세대들도 최근 폐렴, 자궁경부암 등 건강검진에 관심을 보이는 데,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진센터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는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수검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검진예약부터 결과확인도 모바일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몇 년간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진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헬스 키퍼(Health Keeper)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검자들은 PC와 모바일에서 건강검진 전 사전에 온라인 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진이 끝나면 결과확인도 쉽게 가능해졌다. 과거 신

증을 들고 검진결과표를 찾으러 병원에 방문하는 일이 이제는 옛날 방식이 된 것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 보건소에서 의 보건증(식품위생분야종사자) 검진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일부 병원으로 주민들이 몰리는 상황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의 원도 이런 이유로 원내 방문자가 급증한 상태다. 과거에는 검진 방문 이후에도 결과를 찾기 위하여 다시 병원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검진을 위한 최초 1회만 방문하고 결과는 PC나 모바일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 역시 업무 처리에 많은 부담이 줄었다.

또한 직장인 건강검진 시에도 온라인으로 문진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접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앞으로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장 및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각 센터 별로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있으며, 팔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방식을 적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건협회를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정보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지역별 통일되지 않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협회를 사칭하는 계정이 생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수검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브랜드를 훼손할 수 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료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문제 등은 앞으로 협회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